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춘추(春鬪) 없는 봄이 그립다. 매년 이 무렵 학생만 들리던 산업현장에서, 올해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한다.

노사상생(相生)은 기업발전의 키워드다. 노시간·건전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사상생 방안, 효과 등을 시리즈를 싣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고질적인 노조파업 등 조업방해로 무려 2조원을 허용으로 날려버렸다.

파업은 매출총액뿐 아니라 생산성 하락, 품질문제 발생, 국내외 브랜드 가치하락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 87년 노조 설립 이후 94년만 빼고 매년 파업을 벌여 누적파업일수만 1년에 가까운 326일에 달한다. 생산차질수도 100만대를 넘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3년 동안 생산해낼 분량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데다, 생산차질액

전국사업장 연간 2조원 날린다

광주·전남 지난해 분규 일수↓ 파업강도↑

경영여건에 맞는 '노사원원' 교섭 정착돼야

만 10조원을 넘고 부품·운송업체 손실액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도 1987~2006년 매년 부분·전체파업을 거듭하면서 3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와 금호타이어를 비롯, 전국 사업장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로 인해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은 엄청나다.

노동청에 따르면 전국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2003년 320건, 129만8천663일, 2004년 462건 119만8천779일, 2005년 181건 84만7천697일, 2006년 138건 119만9천767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2000~2005년 6년동안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10조9천252억원이었다.

연평균 1조8천208억원이며, 자동차 업계 파업이 극심했던 2002년(2조1천269억원)과 2003년(2조4천972억원)에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2건으로, 전년(18건) 대비 33% 감소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3만243일에 달해 전년(1만7천845일) 대비 69.4%나 증가했다.

노사분규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이유는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전남동부건설노조, 여전 NCC 등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강도가 세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파업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국내 연평균 근로자 1천명당 근로손실일수는 93.5일인데 반해 영국 21일, 미국 48일, 독일 9일, 일본 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업의 폐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업이 지역과 나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파업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내년부터 한우 이력시스템 적용

김달중 농림차관보 밝혀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5대 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이 7일 광주YMCA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본부(대표 김상집)는 기름값·카드 수수료·휴대전화 요금·약값·은행수수료 및 예대마진 등 5대 거품거리가 빠질때까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0면>

/위직령기자 jrlw@kwangju.co.kr

중기청 창업촉진 강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근)은 대학생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강좌를 지원한다.

2006년 도입된 창업강좌 지원사업은 대학내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점을 인정하고, 성공기업 CEO 특

차관보는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비,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종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축수출하를 자제하기 위해 송아지안정제 기준 가격 현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조합장은 "한미 FTA 타결로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면서 "도축세 전면폐지와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견의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창업전문가 강의팀 구성 및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희망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iba.go.kr)를 이용, 서류를 작성한 뒤 광주·전남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62) 360-9113.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작년 통신비 월평균 13만5,040원

2000년보다 2배 높아

가계가 부담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요금 등 통신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지난 2000년 7만4천 785원이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해 13만5천40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가계의 전체 통신비 지출규모는 2005년보다 5.46% 늘어난 26조 6천907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통신비가 가계소비에서 '고정지출비'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여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96년 6.7%였던 가계소비증기율은 2004년 0.5%로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4.4%에서 9.2%로 2배이상으로 커졌다. /김지연기자 dok2000@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둘려 드립니다!

드아아~ **목포출발, 노동(고등)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제에슬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어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 포함내역: 항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오픈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활히

10,500+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힘들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렌카 파격할인★

전차종 68% 할인

*이번부터 24시간 29,000원(네비케이션 포함)

1박2일 항공 골프투어 389,000원

월·화·수 출발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항공항공, 판타지호텔, 조식(2회), 세탁차량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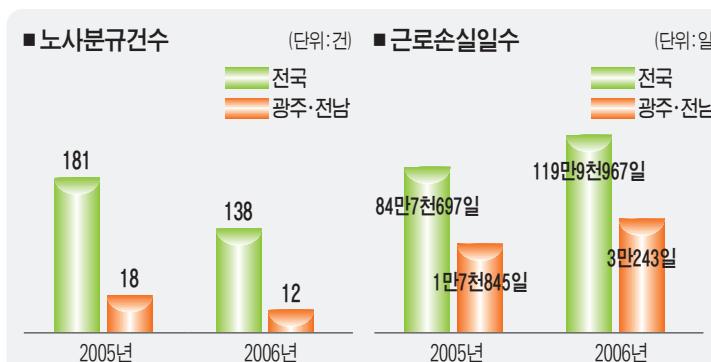
2박3일 항공 골프투어 419,000원

일·월·화·수 출발기준(한라산등반+2박3일)

*포함내역: 항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문의: ☎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훼리

① 노사 분규 피해



노동생산성 56% 늘었지만

제조업체 근로자수 제자리

산자부 2000년 이후 조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 이후 56% 이상 늘어났지만 이 기간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제자리에 머물 정도로 제조업 분야 고용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44% 가량 올라 제조업 전반에서 봤을 때는 아직 생산성 증가를 뛰어넘는 임금 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6년 156.1로 56.1% 높아졌다.

하지만 이 기간 조사대상 제조기업의 근로자수는 2006년 100.7

(2000년 100 기준)로 2000년에 비해 1%도 채 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간 지수는 2006년 92.7(2000년 100)로 크게 줄어들었다. 노동생산성 지수는 산출량 지수를 노동투입량(근로자수×노동시간) 지수로 나눈 것으로,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량 증대와 함께 제조업 분야의 노동투입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29만3천개였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어 2006년 416만7천개로 12만6천개 감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제조업체·근로자 증가율 1위

2000년 이후 광주시의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가 통계청의 시·도별 산업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사자 5인 이상 지역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00년 1천459개에서 2005년 2천103개로 44.1% 증가했다.

이는 서울(7.5%)과 부산(1.1%), 대구(15.1%), 인천(11.0%) 등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 제조업 종사자도 2000년 4만7천569명에서 2005년 6만790명으로 27.8% 증가했다.

이는 서울(-6.5%)과 부산(-9.4%), 대구(-5.2%), 인천(-4.4%) 등 5개 시·도 종사자 5인 이상 지역 제조업체 수는 대폭으로 증가율에서 충남(2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도 2000년 3조9천72억원에서 2005년 6조1천297억원으로 56.9% 늘어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84.1%)과 경북(83.8%), 전남(82.0%)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사택 찬값 매각 인기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직원 사택인 여수시 신기동 부영아파트에 대한 공개 매각에 나서면서 여수지역 무주택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GS칼텍스에 따르면 GS사 24평형 부영아파트 3단지(309동) 156가구를 공개 매각하기 위해 최근 누리사업개발을 대행사로 선정하고 지난주부터 시민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96년 6.7%였던 가계소비증기율은 2004년 0.5%로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4.4%에서 9.2%로 2배이상으로 커졌다.

GS칼텍스